가을, '불교학의 숲'을 거닐다

가을맞이 불교학술대회 세미나·강연

이제 완연한 가을이다. 이 시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불교학계와 관련 단체들의 다양한 학술 세미나와 강연 등이다. 이들 중에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 불자들도 관심있게 찾아볼 세미나와 강연들이 적지 않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행사들은 다양한 주제로 이뤄져 불교의 식견을 넓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신성민 기자**

불교의 깊은 이해 원한다면

불교 전문 학회와 기관들이 여는 세미나는 불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최신 학술 사안을 파악하기 좋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11월 12일 동국대 초허당세미나실에서 '불교 전래에서 교학의 연속성과 불연속성_인도불교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배경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강사의 '원시불교로부터 부파불교까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의 '원시부파불교로부터 대승불교까지' 남수영 동국대 박사의 '원시·부파·대승불교로부터 중관사상까지'가 발표된다.

중앙승가대 대학원(원장 보각)은 오는 10월 22일 오전 9시 45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형성과 변천'을 주제로 제9회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중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을, 박광연 동국대 HK연구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 一平)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보살계 수계의식의 특징-범망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제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불교의 참회사상을 학술적으로 고찰한다. 10월 28일 오후2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호운미술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는 이성운 불교문예연구소 학술연구교수의 '중국불교 참회법의 발생과 그 의의', 한지연 금강대 학술연구교수가 '〈법화삼매참의〉의 특징적 내용과 그 의의',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화엄종 참회법의 사상적 특징과 그 의의' 등이 발표된다.

수계·참회 등 세미나 주제 다양
현대 고승·의승군, 학술적 조명
해외 석학 참여 등 강연도 풍성

불교미술·종교학에 관심있다면

불교미술과 종교학 관련 학술대회들도 마련된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오는 10월 22일 서울 시민청 동그라미방에서 '근대불교미술의 재해석'을 주제로 제2회 학술대회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1930년대 불교조각의 새로운 경향'을, 홍은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연구부장이 '남양주 흥국사 근대 범종 연구'를, 군산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이 '동국사 소장 일제강점기자료 고찰'을, 홍대한 숙명여대 연구교수가 '한국석탑 건립에 있어 전통과 현대의 계서성 연구' 등이 발표된다.

양극화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최준규)는 11월 4일 오후1시 선문대 국제회의실에서 '양극화현상 극복을 위한 종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계에서는 김세곤, 정귀연 동국대 교수가, 개신교에서는 오성주 감리신학대 교수가, 천주교에서는 김경이 가톨릭대 교수 등이 참여해 각 종교 교육으로 본 양극화 극복 방안을 고찰한다.

고승을 통해 불교사 보기

고승들의 행적을 통해 불교사를 톺아볼 수 있는 세미나도 열린다. **대각사상연구원**(원장 보광)과 봉암문도회는 10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용성 스님의 전법제자인 봉암 변월주 스님의 사상과 유업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탁 연세대 교수가 '봉암의 불교사상'을, 팔리문헌연구소 마성 스님이 '봉암의 태고종사론에 대해'를, 김호귀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용성과 봉암의 금강경 번역에 대한 비교 고찰' 등을 발표한다.

영규대사와 800의승군을 조명하는 세미나도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와 윤상현 국회의원은 11월 4일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영규대사와 800 의승'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은용 원광대 명예교수가 '임진왜란 시기 의승의 활동과 역할'을, 황인규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가 '영규대사와 의승의 청주성·금산전투'를,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가 '임진왜란 참전 의승의 공적과 추념사업' 등을 발표한다.

불교의 대중적 이해를

불교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들도 눈길을 끈다. **정의평화불교연대**는 '깨달음의 방편으로서 불교문화와 예술읽기'를 주제로 5기 눈부처 학교를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에 진행 중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사찰문화 읽기, 불교 미학 이론, 불교 문학 감상과 이해 등이 구성된다.

또한, **재단법인 리앤원**은 '인도 고대불교를 찾아서'를 주제로 오는 10월 21~22일 워크숍 및 국제학술강연회를 연다.

이번 워크숍과 강연회에는 인도 불교사와 종교사, 불교 문헌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하리 팔크 독일 베를린대학 교수와 리처드 살로몬 미국 워싱턴대학 교수가 참가한다.



국화향기 가득한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 국화꽃이 활짝 폈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10월 11일 제6회 국화향기 나눔전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의상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허영만 화백의 '날아라 슈퍼보드'를 형상화한 국화조형물, 잉어국화, 국화가 만발한 조계산 등이 선보였다. 조계사를 찾은 젊은 연인들이 슈퍼보드를 형상화한 국화조형물을 흥미롭게 보고 있다. **노덕현 기자**

"불교, 남북교류 앞장서 통일의식 깨워야"

법타 스님, 10월 12일 민추본 30차 월례강좌서



금강산 신계사 복원 9주년을 맞아, 경색된 남북관계 속 불교의 역할을 전망하는 자리가 열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0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남북불교교류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30차 월례강좌를 개최했다. 신계사 복원 9주년 기념 토론회로 마련된 이날 민추본 본부장 법타 스님은 직접 기조강연자로 나서 '북한 불교의 이해'에 대해 설명했다.

법타 스님〈사진〉은 "불교는 남북한의 최대 종교이자, 북에서도 타 종교에 비해 애국종교로 여겨진다. 특히 남북 문화재 중 불교문화재는 80%이상으로, 동질성 유지와 회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러므로 불교는 민족교류에 앞장서야 하며,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지향점으로 '개인의 성찰과 변화'를 제시했다.

민 국장은 "많은 참여불교인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한 방식은 개인의 성찰과 변화로부터 출발한다. 문제의 이해당사자들 참여시킴으로써 문제의 진단과 해결방한을 함께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선 정웅기 위원도 같은 의견을 내며 종단의 역할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이 제시한 종단의 과제는 △불교 내 사회교육 대폭 강화 △사회활동 인재 양성 △사찰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사회적 역할 모델 개발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불교적 해법 도출, 탁마의 장 구성 등이다.

정 위원은 "종단은 불교사회활동진흥법을 만들고 불교시민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했지만, 열악한 불교시민사회를 지원하고 배려하는데 여전히 인색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아름 기자**

북불교교류의 향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당국 간 대립과는 별개로 불교계는 신계사 도감의 상주적 파견과 제안 노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신계사 최승전의 보수가 시급하다. 서까래가 무너져 재보수 작업을 추진할 것을 양 정부에 거듭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냉전적 국면에서도 문화재 보수와 지원을 제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신계사는 분단국서 남북공조를 통해 공동으로 복원한 절이며, '화합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참여불교, 주체 확보·종단 역할 必要"

불교사회연구소, 10월 12일 '한국 참여불교 과제' 세미나



왼쪽부터 유승무, 정웅기, 민정희

한국사회서 불교의 역할과 그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른바 '참여불교'다. 전문가들은 불교의 사회참여는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0월 12일 서울 견지동 불교문화사업단 3층 보현실서 '지속가능성과 평화를 위한 한국 참여불교의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론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민정희 기후생태네트워크 사무국장, 정웅기 화쟁위원회 위원이 나섰다.

'참여불교'는 베트남의 틱 낫한 스님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각 사회마다 내재한 현상에 대해 불교가 참여한단 개념이다. 이날 자리는 세계 참여불교의 현황을 통해 한국사회 참여불교 현황과 과제를 찾아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먼저 유승무 교수는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불교의 노력은 극히 자연스러운 시대적, 문명적 응전"이라며 "그러나 한국불교는 왜 참여불교운동이 좀처럼 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국불교는 세계적 문제나 인류 공동선과 관련된 영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운동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민정희 사무국장은 해외 참여불교인들이 나타내는 공통적 특징으로 △고통을 회피·부정하지 않는 점 △비폭력 태도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점 △개인의 성찰에 기반한 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점 등을 소개하며, 한국불교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 접수

설법연구원 10월 31일까지 추천받아

설법연구원(원장 동출)은 10월 31일까지 제13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대상자를 추천 접수 받는다. 설법연구원은 불교 포교 현장에서 일하는 재가불자와 불교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불교활동가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추천대상은 현재 불교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재가불자나 불교시민단체로 활동내역서와 계획서를 첨부해 설법연구원에 이메일(sulpub@ nate.com)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 행사는 설법연구원 원장 동출스님을 비롯해 민불동지회 서동석 회장, 근본불교연구회 이규옥 회장, 불교정의평화연대 최연 공동대표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한편, 불교활동가 지원은 동출 스님 주도로 2001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37명이 각각 200여만원 씩의 지원을 받았다. (02)720-0824 **노덕현 기자**

